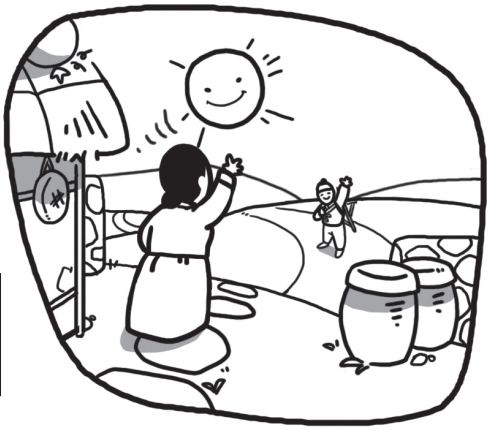
2. 낮과 밤

해는 東(동)쪽에서 나와
西(서)쪽으로 들어간다.
해가 나오면 낮이 되고
해가 들어가면 밤이 되니
밤에는 달과 별이 나타난다. (『계몽편』「천편」)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東



西

晝

夜

본문 해설

"해는 東(동)쪽에서 나와 西(서)쪽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맑은 날 아침과 저녁에 볼 수 있는 일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리고 해 뜨는 방향이 東(동)쪽이고 해 지는 방향이 西(서)쪽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東(동)쪽과 西(서)쪽은 어떻게 정했나요? 한자 東(동)쪽을 뜻하는 東이란 글자를 보면, 나무를 뜻하는 木에 해를 뜻하는 日이 겹쳐져 있지요? 아마도 해가 뜨는 쪽을 東(동)쪽이라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 반대는 西(서)쪽이고요. 이미 東(동)쪽과 西(서)쪽이 정해졌다면 南(남)쪽과 北(북)쪽은 자동적으로 정해지지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해가 나오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나요? 사막이나 넓은 들판에서 보면 땅 밑에서 나오고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일 거구요, 만약 넓은 바다에서 본다면 물밑에서 나와 물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일 거예요.

과학지식을 잘 아는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옛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실제로 해나 달이 땅이나 물밑에서 나와 하늘에 떠서 西(서)쪽의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해가 나오면 낮이 되고 해가 들어가면 밤이 되니, 밤에는 달과 별이 나타난다."

라는 말도 실제로 우리가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밤[夜]과 낮[晝]은 해가 있거나 없는 것에 따라 정해진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보면 요즘 어린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거라 믿어요. 밤[夜]이 되고 낮[晝]이 되는 것은 지구가 돌기(자전) 때문에 해가 비치는 쪽이 낮[晝]이고 해가 비치지 않는 그늘이 밤[夜]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것을 몰랐던 옛날에는 땅은 우주 가운데 멈춰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과 함께 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볼 문제

1. 앞의 본문에서 낮과 밤이 되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나요?

   (　　)

2. 다음 밑줄 친 낱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세요.

   해는 동쪽에서 나와 → [　　]

   서쪽으로 들어간다 → [　　]

3. 서로 관계되는 것끼리 줄로 이어 보세요.

   (1) 동쪽 ●　　● 달, 별

   (2) 서쪽 ●　　● 해가 뜬다

   (3) 밤 ●　　● 해가 진다

4. 반대되는 방향을 서로 짝 지어 (　) 속에 써 보시오.

   가. (　　) ↔ 서쪽

   나. 남쪽 ↔ (　　)

   다. 위 ↔ (　　)

   라. (　　) ↔ 뒤

5. 시계가 없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시각을 알았을까요? 각자 해와 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요. 말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낮	밤
한자	東	西	南	北	晝	夜
음	동	서	남	북	주	야

2. 다음에 관계되는 낱말의 번호를 아래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보기〉 ① 南北(남북) ② 晝夜(주야) ③ 東西(동서) ④ 日出(일출)

동쪽과 서쪽 (　　)

남쪽과 북쪽 (　　)

낮과 밤 (　　)

3. 다음의 한자의 뜻과 음을 써 보아요.

한자	뜻	음
南		
晝		
北		
夜		

4. 앞의 『계몽편』의 내용을 다시 써 보았어요. (　)속에 알맞은 한자의 뜻을 써 넣어 보세요.

日(　　)는 東(　　)에서 나와
西(　　)으로 들어간다.
日(　　)가 나오면 晝(　　)이 되고
日(　　)가 들어가면 夜(　　)이 되니
夜(　　)에는 月(　　)과 별이 나타난다.

일곱 개의 해

몽골의 옛 이야기에요. 오랜 옛날에 일곱 개의 해가 하늘에 떠 낮[晝]만 있어 땅은 말라서 먼지만 날리고 강물도 말라붙어 사람과 동물들은 더위에 시달렸어요.

그 때 어느 지방에 활 잘 쏘는 궁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하늘의 해를 쏘아 없애달라고 부탁을 하였어요. 그러자 그는

"내가 일곱 개의 해를 없애지 못하면 내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물도 마시지 않고 마른 풀도 먹지 않는 타르박(다람쥐처럼 생긴 동물. 일명 마못)이 되어 어두운 땅굴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東쪽에서 西쪽으로 줄지어 있던 해를 東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쏘았어요. 여섯 개의 해를 없애고 일곱 번째 해를 쏘려는데 마침 그 때 제비가 지나가면서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화살이 빗나가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 화살이 제비꼬리를 맞혔기 때문에 꼬리가 그만 두 갈래로 찢어지고 말았지요.

마지막 남은 해는 궁수가 무서워 그날부터 西쪽 산 너머로 얼굴을 붉히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밤[夜]이 생기게 되었지요.

궁수는 자신과의 약속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물을 마시지 않고 건초를 먹지 않는 타르박이 되어 어두운 땅굴 속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타르박의 발가락이 네 개인 까닭은 궁수가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기 때문이에요. 타르박은 아침과 저녁에 구멍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궁수가 자신이 타르박이 된 사실을 잊어버리고 태양을 쏘겠다고 나오는 것이라고 해요. 또 이 세상에 남은 하나의 해는 궁수를 두려워하여 산 너머로 사라지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이 번갈아 돌아온다고 해요.

관련 인성 가치	소통